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낭만을 걷는 일산 경의철길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일상 속 풍경도
이야기와 함께라면 한 폭의 멋진 추억이
된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걸으며
옛사랑 노래에 취하거나, 뉴트로 감성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

글. 사진. 박소연(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도보관광코스 신청 방법

문의 고양관광정보센터(031-905-8396)

코스 낭만을 걷다 '일산 경의철길'

백마역→애니골→백마 화사랑(숲속의 섬)→풍산역→구일산역
→일산시장

도보여행의 출발점, 백마역

♬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키 작은 소나무 하나 /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무 되어~ ♬

기차와 소나무가 어울리는 곳 백마역에 왔다. 1966년 임시 승강장으로
영업 개시한 백마역은 백석과 마두리에서 앞글자를 뺐다. 백석동에 있는
흰 돌에 소원을 빌기도 했듯이 흰색은 신성함을 나타낸다. 새해에 좋은
기운을 주는 출발 코스가 아닐까. 1번 출구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피프틴
대여소가 보이는데 풍산역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면 철길 옆 녹지공간이
나온다. '땡땡땡'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기차 건널목을 지나가다 보면
홀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경의선 철길을 따라가며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다. 도보코스에는 추운 겨울을 버티면
사시사철 푸르게 된다는 세한(歲寒) 속 소나무, 대왕참나무 등 나무들이
보인다. 꽃 피는 봄이면 길이 더욱 멋지리라.

기차길 옆 풍경, 낭만이 물씬

백마역에서 걷다 보면 교차로에 익숙한 단풍나무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애니골거리이다. 풍동의 옛 지명인 '애현마을'에서 유래했다. 백마역이
유명한 것은 고양시 대표 음식문화거리 애니골 덕분이 아닐까. 애니골까지
걷다 보면 잠깐 숨 돌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진다. 그중 최근 재개장한
백마 화사랑(숲속의 섬)에 들어서 전통차를 키오스크로 주문했다. 벽난로도
있고, 벽돌로 만들어진 숲속 산장 같은 카페는 음악과 문화가 있는 곳이었다.
2020년에 고양시 상징건축물로 지정되었다. 경의선은 출퇴근용, 통학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80년대 대학생들

이 백마역 주변에 모여들어 많은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화사랑', '썩은
사과', '초록 언덕', '섬' 그리고 '숲속의 섬'에서 '백마 화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름과 공간은 바뀌었지만, 기차길 옆 낭만은 그대로인 것 같다. 앞으로
영화 '화양연화' 속 홍콩 레스토랑처럼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가장
찬란한 시절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의 참고처럼 말이다.

고양시민의 소중한 휴식공간, 경의철길

풍산역 가는 길에는 포인트로 LOVE 포토존이 있고, 코스 내내 운동기구로
운동도 할 수 있으며, 벤치도 있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오른쪽에 철길을
끼고 걷다 보면 도심 속 섬처럼 시간이 정지된 느낌마저 든다. 일산역
방향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낀다.
귀여운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 손잡고 다정히 걷는 커플, 추운
날씨에도 건강 관리에 열심인 고양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이불 밖을 나오는 건 힘들지만, 잠깐 나와서 걸기만 해도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다니... 혼자 걸어도 유쾌한
음악과 함께라면 외로움 일 없다. 경의철길은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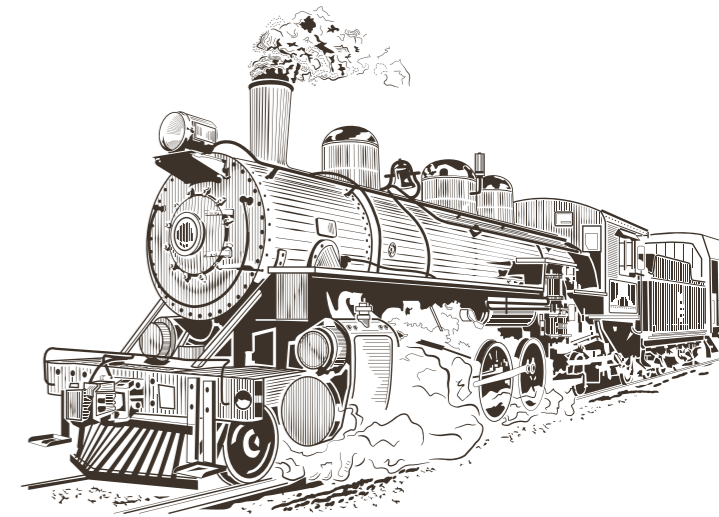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구일산역

마지막 코스는 구일산역이다. 일산역 일대는 곳곳에 타워크레인이 올라가는
등 대변신 중이다. 구일산역 앞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오래된
집들이 단혀 있고 그 뒤로 일산역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백 년 된 일산역의 미래도 궁금해진다. 1933년에 세워진
구일산 역사는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294호로 지정되어
일산역 전시관, 장난감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잘 가꾸어지고 있는 기차길공원과 탄현역 방향의

산책로 또한 멋있다. 구일산역 주변에 가볼 만한 곳으로 일산리 헌병주재소터,
독도홍보전시관, 일산오일장(3·8일) 등이 있다. 앞으로도 '경의선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문화의 거리 조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차분하게 걸으며 사색하기 좋은 경의선철길

경의철길 도보코스를 한마디로 하면 '시간을 달리는 코스'라 할 수 있겠다.
백 년 전에 군용철도로 만들어진 경의선에는 3·1운동, 6·25전쟁과 관련 있는
일산역 외에도 음식문화거리인 애니골, 7080 중장년에게 향수를 일으키는
백마 화사랑(숲속의 섬)처럼 뉴트로한 맛이 살아있는 곳이 있다. '진정으로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철학자 니체의 말이 있듯이 평탄한
길, 경의철길(4.1km)을 걸으면서 사색에 빠져 보는 건 어떨까. 고양시의
어제와 오늘, 추억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의선철길 도보코스를
추천한다.



(좌측부터) 백마역, 기차길 건널목, 백마-풍산역 구간, 애니골, 백마 화사랑, LOVE 포토존, 구 일산역, 일산시장

